

단기 선교팀 신청서 (2)

※ Team No : 2018-023

1. 신청부서 :

(팀명 : 청년1부2팀) 몽골 2팀

2. 선교국가 : 몽골

3. 사역지 : 울란바트라

4. 공 항 :

5. 사역기간 : 2018년 08월 02일 (목) ~ 2018년 08월 08일 (수) - 6박 7일

선교위원회 확인

담당

분과장

위원장

김영환 6/24 이영석 6/24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1차2차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사무 안수집사	정재영	15		X ○	95-841					
2	총무		김인애	13		X X	86-55					
3	서기		김예림	6		X ○	2001-038					
4	회계		박충현	3		X ○	98-425					
5	의료		황가영	1		X ○	2006-033					
6	팀원		류현식	10		X ○	92-247					
7	팀원		박예림	2		X ○	99-333					
8	팀원		성효경	11		X ○	96-658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2차심사후 3차심사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7. 4. 9 양식변경]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김영환

몽골선교 소감문
청년 1부 김인애

처음 가보는 연합선교라 두려움 반 기대 반 마음을 갖고 선교준비를 해 나갔었다.

개인적으로 선교준비를 하며 다른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전에 다녀왔던 선교만큼 완전하게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어 선교준비하지 못했기에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다.

몽골에 와서 매일 밤에 경건회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읽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말기며 기도하니 다음날 사역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아래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 의료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아왔고, 부족하지만 진행 되는대로 열심을 다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늘 완벽한 주님의 뜻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선교를 해 나갔다.

첫 연합선교라 다른 팀들과 함께 연합하여 선교사역 한다는 것이 너무 뜻 깊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몽골 교회 사역자 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 예배를 드리고, 의료사역 어린이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다.

몽골 땅 안에서 현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뜻 깊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편하고 쉽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그 땅 안에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세례 받은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의료사역을 도와서 하며 정말 주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기뻐할 수 있었다. 어린이 사역 또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아이들과 놀이 하며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내내 주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정말 사역하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더불어 몽골 선교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역자 분들 한명 한명이 기억에 남는다. 통역으로 왔던 친구도 그렇고, 몽골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을 다해 그 땅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셨다. 그렇게 모든 삶을 다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너무 삶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조차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역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몽골은 아직 너무나도 교회가 적고 크리스찬이 많지 않다. 그러기에 더욱 몽골 땅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소중하고 귀하다. 몽골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나가야겠다. 이번 선교는 정말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사역소감문

청년1부 몽골 2팀 박충현

올 해 여름은 제 인생에 있어 큰 기회가 왔었던 여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중순 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준비하던 도중 광고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왔고 광고 1건이 있는데 함께 촬영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준비하던 시기인지라 아쉽게도 촬영을 하지 못했고 에이전시에서는 여름에 다른 촬영으로 함께 하자고 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보장되어있는 여름 방학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가장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면 어떨까?”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자는 생각이 갑작스레 들었고 촬영을 포기하고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자신을 의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의 중점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뜻을 아버지께 강요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부족했던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무언극을 준비할 때에도, 언어를 외울 때에도, 직책 회계에 대해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단순히 봉사로만 끝내려고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고 무사히 선교를 잘 할 수 있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배웠던 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심.

그 기도는 내가 아닌 자신을 믿으라는 아버지의 뜻임을 배운 것 같습니다.

2. 생활비

순위	일자	내역	금 액		비고
			US\$	현지화	
1	2018-8-3	물		16,600.00	
2	2018-8-3	총 사역비, 물료수	500,000.00	80,180.00	
3	2018-8-4	물, 음료수, 커피, 아이스크림	7	67,370.00	
4	2018-8-5	커피		38,000.00	
5	2018-8-5	물		7,800.00	
6	2018-8-6	물, 간식		40,000.00	
7	2018-8-7	아이스크림 (인)		32,560.00	
8					
9					
10					
11					
12					
13					
14					
15					
16					
불입금		총 일간	\$ -	287,910.00	₩56,029,731
		1일 평균	\$ -	41,130.00	₩8,004,247

3. 교통비

순위	일자	내역	금 액		비고
			US\$	현지화	
1	2018-8-4	교통비(주유충전)		1060000.00	
2	2018-8-8	차량비(8.2~8.8)	302.00		302\$ 차용
3					
4					
5					
6					
7					
8					
9					
10					
소 계		총 일간	\$302.00	1,060,000.00	₩206,626,742
		1일 평균	\$ 43.14	151,428.57	₩29,518,106

선교소감문

성효경

저의 첫 선교였던 몽골선교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보고 올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첫 연합 선교였고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몽골 선교는 선교지에서 그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빈틈없이 채우셨습니다. 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선교사역은 점점 더 제자리를 찾아갔고, 순조로워졌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인원도 많고 해야 할 사역도 여러 개다 보니 각자가 맡았던 사역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년 선교팀이 맡았던 사역은 크게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이었습니다. 저는 둘 다 해보았는데, 의료사역은 의료사역대로의 은혜가 있었고, 어린이사역은 어린이사역대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무너지고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셨고 완벽하셨습니다. 나를 그 곳에 보내주셔서 또 사용하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몽골 연합팀 소감문

97 김예림

나에게 이번 선교는 여느 때와 다르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선교였다. 학생으로 몇몇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에 갔던 중고등학생 때와 다르게 이번 선교는 성인이 되어 처음 가는 선교여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다. 특히나 서기라는 직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역의 모든 순간을 기억해야 기록해야한다는 것부터 나에게 하나의 과제였다. 또한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팀원 변동도 많았고, 사역지를 정하는 것부터, 갑자기 결정된 연합선교까지 정말 시작부터 어려웠던 선교였다. 하지만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오니 이번 일주일간의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가 넘치는 선교였다고 말하고 싶다. 사역지에 가서도 우리 예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그것조차 예비하셨음을 알게 하셨다. 매일매일 사역하는 교회가 바뀌고 사역 일정이 바뀌지만 그 가운데에서 잘 마치게 하심이 은혜였다. 또한 청년팀이 거의 의료 지원을 나갔었는데, 의료 사역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 또한 큰 은혜였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일 감사가 넘쳤다. 걱정했던 첫 연합선교였지만, 의료팀이 의료사역을 하면 그 옆의 건물에서 교구팀과 청년팀이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 사역도 함께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몽골 선교 소감문 박예림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합선교로 몽골 땅에 나아갔는데 저에게 첫 선교는 아니었지만 처음 겪어보게 된 방식인 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우리에게 많은 몽골의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몽골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온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몽골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로 저에게도 신앙의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안에서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선교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